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나는 네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을 주는
에어컨이 아니야.



네가 손이라도 움직여야
바람이 이는 손부채.



[제 1독서] 2역대 24, 18-22

[화답송] 시편 31(30), 32-4.6과 7-과 8-과 21-과 (◎ 6- 참조)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 2독서] 로마 5, 1-5

[복음 환호송] 마태 5, 10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태 10, 17-22

성가	8시 미사 11시 미사	입당 287 입당 287	봉헌 -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60 166 성체 160 166	파견 286 파견 286
----	-----------------	------------------	--------------------	--------------------------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성김대건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연중 제 15주일(7월 14일)		연중 제 16주일(7월 21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이바로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제 1 독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이바로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강요한(신호)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김안젤라(영선)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짧지만 아름다운 삶

오늘은 한국의 첫 사제이시며,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미사를 봉헌합니다. 본래는 7월 5일이 그분의 대축일이었지만 많은 교우들이 함께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알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주일로 이동해서 대축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께서 지니셨던 불굴의 용기와 굳은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충청도 솔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1836년 12월 마카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 있는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에 올립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그해 10월 12일 귀국하여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846년 6월 5일 관헌들에게 체포됩니다.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받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고 다음날인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때 그분의 나이는 겨우 26세 이셨습니다. 그는 사목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고 죽음으로써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 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사형 집행 전에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설교가 끝난 후 관헌들은 김 신부님의 웃옷을 벗기고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흰 회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밧줄 한 가닥으로 머리칼을 동여매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때 김대건 신부님은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부님의 기백과 용기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김대건 신

부님의 삶은 성직자와 수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용감한 삶이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암시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태 10,21-22)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연 초대교회 때에는 수많은 박해가 있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되던 초창기에는 끔찍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그 모진 박해를 끝까지 견디어 냈으며, 신앙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들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열심히 삽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신부님, 신부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지난 5월 제주교구로 성지순례 갔다가 용수성지에 들렀습니다. 성지 마당에는 작은 목선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배는 길이 13.5미터, 너비 4.8미터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입국하신 라파엘호를 복원한 것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845년 8월 17일에 중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조선교구 3대 교구장이신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주교님을 비롯한 13명의 일행과 함께 라파엘 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작은 배로 망망대해를 건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신부님 일행은 40여 일의 항해 도중, 여러 번 폭풍우를 만나 침몰의 위기를 넘기면서 9월 28일에 제주도 용수리 해안에 표착하였습니다.

신부님은 불과 몇 달 전에도 조선에서 구입한 라파엘 호를 타고 상해로 가는 길에서 그런 고생을 하였습니다. 라파엘 호는 1845년 4월 30일에 제물포를 출발하여 6월 4일,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사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큰 폭풍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과 동행한 신자들은 죽을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부님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 모르는 신자들에게 성모님 상본을 보이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계속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성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36년 4월, 15세의 나이로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어 그해 12월 고국을 떠나 다음해 6월, 마카오에 도착하여 사제수업을 시작한 이래로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형 직전에도 군중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고난으로 점철된 삶에서도 김 신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조선교회에 대한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과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환난 중에도 인내와 끈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제2독서)

또한 예수님께 대한 충실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복음) 지금 우리는 과거처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도전은 황해의 노도처럼 거세고, 온갖 유혹은 보이지 않는 오랏줄처럼 우리를 묶어매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제들이 더욱더 성령께 의탁하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여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협하는 거센 파도와 힘차게 싸우고 교묘한 유혹의 올가미를 결연하게 벗어던지며 주님의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 7월의 성인/성녀

성김대건 안드레아, 고르벨리오, 나자리오, 다니엘 루치아, 라이문도, 마리아막달레나, 마르치아, 마르티노 베르타, 바울리나, 베로니카, 보나벤투라 실라, 세라피나, 세르바노, 세쿰디노 엘리야, 안나, 요아킴, 에스테르, 율리오 아돈, 에즈라, 요엘, 예수의 테레사, 트리폴, 토마스, 크리스티나, 필로메나, 헬레나

*성김대건 안드레아(7월 5일 축일)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출생
1844년 12월 15일 페레올 교 주교로부터 부제품
1845년 8월 17일 김가항(金家港) 성당에서 페레올 교 주교 집전으로 사제품(조선교회의 첫 사제)
1845년 10월 12일 귀국후 선교/사목활동
1846년 체포,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김 신부는 도리어 관리들을 교화시키려고 함
1846년 9월16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

말씀의 향기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2009년 10월, 암이 재발하여 본격적인 항암요법이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제1차 치료를 끝냈을 때 제 체중은 5kg이 줄어 있었습니다. 밥은 물론 물도 한 모금 삼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다시는 항암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으며 주치의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때려죽여도 다시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제 머릿속에 줄곧 떠오르던 것은 성 바오로의 충고였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1데살 5, 16)

그것은 무슨의 진리였습니다. 고통으로 기도의 말조차 떠올릴 수 없었으며, 기쁨은커녕 감사의 마음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향해 ‘자, 일어나 가자!’ 라고 비장한 출사표를 던지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 14,27) 그러나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주님이 주는 평화를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사이비교주란 말입니까. 저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천지창조 이전부터 사랑해 오신 하느님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을 믿는 가톨릭 인으로서 도저히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 기쁨을 느낄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지도 사제이신 곽 신부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떼를 썼습니다. “신부님, 저는 항암치료를 포기할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만을 데리고 겿세마니 동산으로 올라가 근심과 번민에 싸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 (마태 26,38)

아아, 그때 느낀 마음의 위로는 얼마나 강렬했던지요. 하느님의 외아드님인 주님도 ‘근심’ 과 ‘번민’ 에 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그렇다면 저의 고통과 두려움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라고 한탄하신 걸 보면 아아, 주

님도 얼마나 고독하셨던가요.

그래, 주님과 더불어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자. 내 고통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영혼의 불침번과 같은 것이니, 다시 시작하자. 항암치료의 자명종을 통하여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자.

바로 그 무렵 저는 예수의 성 데레사가 쓴 「완덕의 길」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정말 필요한 것이면 보아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스스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 걱정, 죽는 걱정을 단번에 끊어버릴 결심이 없으면 평생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무엇이든 올 테면 오라지요. 죽은들 어떻습니까. 몸뚱이가 우리를 조롱한 것이 몇 번인데, 우리들 한두 번쯤 그놈을 조롱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믿어주십시오. 이러한 결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몇 번이고 이와 같이 해나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육체의 ‘지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지상의 모든 환자 여러분. 성데레사의 말처럼 육체의 지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원수를 정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일반 : 세계청년대회

브라질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통하여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 아시아

아시아 대륙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기도합니다.

가톨릭전례 “왜 자유는 제한을 받아야 하며, 참 자유는 어떻게 얻나요?”

‘자유’란 말은 생명이란 단어만큼 소중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의 행복에 꼭 필요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정도로 고귀한 것입니다. 자유란 스스로 생각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라고 자유에는 근본적으로 진리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진리는 오직 하느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우리의 행복이신 하느님을 향할 때 완전하게 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731항)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은 자기 마음대로 건반을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을 파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음악을 위해서는 스승으로부터의 배우고 훈련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연습해야 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 조화의 원리를 배우고 끊임없이 연습해야만 합니다. 제멋대로가 아닌 절제된 가르침 속에서 학생은 음악을 배우고 이해해갑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음악의 아름다움은 학생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은 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탄생한 음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선사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며, 진리와 선(善)을 벗어나지 않는 자유를 통하여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가 하느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진리와 선을 분별하는 능력과 맞아떨어질 때” (가톨릭교회교리서 1742항) 그리스도의 은총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듭니다. 은총 속에 머무는 인간의 이성은 진리에 끌리고 의지는 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이성과 의지에 바탕을 둔 우리의 자유는 선과 악의 안개 낀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더구나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자기 행동에 책임을 묻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유의 남용으로 아담과 하와는 불순명과 악을 선택함으로써 ‘죄의 종’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창세 3,13)하고 물으시고,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야의 아내를 간통하고 우리야를 죽인 다윗 임금에게도 예언자 나탄을 통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유는 양날의 칼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참 행복을 향

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강물이 양쪽의 강둑을 넘어 범람하면 홍수라는 재난을 초래하고 삶의 터전은 무너집니다. 강둑이라는 틀 안에서 흘러가는 강물만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가을의 풍년을 약속합니다. 인간의 자유도 진리와 선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선과 진리는 자유의 나무를 올바르게 튼튼하게 키우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인간행위의 고유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로부터 나오는 ‘예!’ 라는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순간 ‘참(眞)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태 26,39)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730-1748항

사목국 연구실

가톨릭 교리 상식

* 감실에 대하여 *

1. 역사

- 초기교회 : 성체를 신자들 집안에 모셔 둠
- 제 1차 니케아 공의회 : 임종 직전의 사람은 꼭 성체를 모셔야 함.
 - * 사제가 없으면 부제라도 영해 주어야 함.
- 4~5세기경 : 성체를 성당에 모셔 두게 됨

2. 감실의 위치와 설치

-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의 눈에 잘 띄이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교회법 제938조 2항)
- * 성체를 모독하는 위험을 최대한 방지

3. 성체를 감실 안에 모셔 두는 이유

- 남은 성체를 보관
- 환자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
- 신자들이 항상 성체 공경에 대한 마음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
 - * 성체조배 :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을 바치는 신심행위

4. 참고 : 현재 가톨릭, 동방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 일부 교단에서 감실을 갖추고 있음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7월 7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윤사비나
	연 윤바오로(광의)	사도들의 모후
	연 윤바오로(광의)	정데레사(혜경)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김사비나(옥순)	박시몬(찬길)
	생 이요한(규호) 생일	익명
	생 박헬레나	5구역
	생 김엘리사벳(영희)	익명
	생 김엘리사벳(영희)	익명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김베드로/마리아	김구네군다(명순)
	생 김아델라(다솜)	송베로니카
	생 백라우렌시오(유찬)	부모
7월 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박세레나	김데레사
7월 10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7월 11일 목	생 박베네딕토(정배)신부님	김데레사
	생 최베네딕토 영명축일	박세레나
7월 12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7월 13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8	232	46	356
헌 금	\$477	\$1,409.22	\$44	\$1,930.22

< 교무금 > \$4,918
 김승희(7-8) 김상실(7-8) 남금지(7) 정경희(7)
 김복철(6-7) 정병섭(1-6) 최윤기(6) 채성일(7-9)
 변귀태(6) 장진혁(4-5) 조우송(7) 이건용(7)
 이종규(1-6) 송인환(5-7) 천종욱(7) 박선자(7)

< 성소후원금 > \$180
 최윤기(6) 김원조(1-6) 박선자(7) 변귀태(7)
 정일양(1-6)

< Bishop's Appeal > \$180
 최윤기(6) 김원조(1-6) 변귀태(6) 정일양(1-6)

< 감사헌금 > 익명 \$50 정일양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45,430
 * 총 납입 \$36,28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강시구, 유춘성, 정병섭, 송호일, 양우선, 김명환
 채용분, 지영남, 이영길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강시구, 익명, 전덕천, 유춘성, 정병섭, 송호일,
 정일양, 서춘애, 양우선, 김명환, 채용분, 이욱경
 이종규, 이주황, 지영남, 추혜성, 이영길, 이건용

~~~~ 오늘 간식은 하사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레지오 야외행사

일시 : 7월 7일(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 Joaquin Miller Park

대상 : 정단원 및 협조단원, 예비단원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구역장회의 : 7월 14일(다음 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뜨개질사랑회 첫모임 : 7월 14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독서클럽 첫모임 : 7월 14일 교중미사 후 103호실

도서 : 세상 끝에서 온 교황 프란치스코

문의 : 전교부 510-703-7350

◆ Sunday School Summer Camp(접수 : 친교실)

일시 : 7월 27일(토) - 29(월) 중등부

7월 29일(월) - 8월 1일(목) 고등부

장소 : Capital Mountain

2150 E Weimar Xrd Weimar, CA 95736

참가비 : Early Registration (7/7 까지)

- 중등부 \$135 고등부 \$175

Late Registration - 중등부 \$155 고등부 \$195

Sibling Discount : \$20/person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ageneheo@hotmail.com

◆ 성인교리반 특강 다시보기

매주 화요일 저녁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을 음성과 ebook 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www.oakcc.org/node/2282](http://www.oakcc.org/node/2282)

◆ 신앙의 해 특강 안내

일시 : 7월 21일(주일) 오후 1시 - 4시 30분

주제 : 신앙과 성가

강의 : 이 종철 베난시오 신부님

(한국 천주교 성음악 토착화 연구원 원장),

성가 "주여 당신 종이" 외 다수 작곡

참가비 : \$10(점심 제공)

◆ 이종철 신부님과 함께 하는 음악피정(오uckland 본당)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반

참가비 : \$20(프로그램, 식사, 간식)

대상 : 성가대, 성가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 염명련 파트리샤 503-369-2945

7월 구역모임 필리피서 1-2장

|      |              |            |
|------|--------------|------------|
| 2 구역 | 7월 14일(일) 6시 | 조덕행 에드몬드 맥 |
| 6 구역 | 7월 13일(토) 6시 | 이기희 베로니카 맥 |
| 9 구역 | 7월 20일(토) 6시 | 신병석 피델리스 맥 |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영선 사도요한 신부님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미사봉헌을 위한 가정봉헌 및 사업체 봉헌도 함께 접수합니다.

\* 단체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선착순, 버스비 \$10)

◆ 가톨릭 성서 모임(조마오로 수녀님 지도)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창세기부터 9월에 시작

문의 : 백승진 미카엘 510-730-1524

◆ 탁구모임 안내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장소 : 친교실

대상 : 전교우(연령, 경험 제한 없음)

문의 : 영광식 니콜라스 510-332-8782

◆ 가족사진 및 가훈 접수

아직 가족사진과 가훈을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은 속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오uckland 교구 홈페이지 봉사자 모집

오uckland 교구 홈페이지 업로드 작업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의 : 이해란 세실리아 925-768-5951

◆ 성물방에 새 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7월 14일 김치바자회를 위해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주일학교 영어미사 : 11시 친교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 8/3, 8/10, 8/17 )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